

광주 구청장 2명, 전남 시장·군수 4~5명 '교체' 예고

관심 커지는 새정치 기초단체장·지방의원 물갈이 폭은

호남 현역 기초장 최소 30% 교체 전망도

공천 탈락자 대거 무소속 출마 입소문 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개혁공천'에 나섬에 따라 광주·전남 현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호남지역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소 30%는 개혁공천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 공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현역 지방의원들도 개혁 공천의 칼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격심사위는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필요한 곳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역 단체장의 직무수행평가와 재지 지 의향도 문기로 함께 따를 것 같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지역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 구청장 5명 가운데 2명, 전남의 시장, 군수 가운데 적어도 4~5명이 공천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현역 지방의원들도 전체에서 30%~40% 정도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의 개혁공천 기준이 제시되자

현역 단체장과 현역 지역의원들에 대한 각종 악성 루머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상대 후보가 개혁공천 심사 기준에 걸려 공천에서 탈락이 확실하고 결국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하다는 입소문들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윤장현 지지 반발 연좌시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지지선언하자 이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이 14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사무실 복도를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략공천, 비판 확산 속 '사전교감설' 차단 주력

당 지도부·중진들 입장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으로 전략공천설이 확산하면서 당 지도부와 중진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측 최고위원들은 안철수 대표와 사전교감설을 차단하며 안 대표가 비판의 중심에 서는 것을 막는데 주력했다.

유원식 최고위원은 14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의원들이 개인적 생각에서 지지선언하는 것은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략 공천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다른 후보들이 모두 경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전략공천을 하면 당내 반발도 크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이번엔 줄 세우기 지지선언을 했다"며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엄정한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아직까지 경선률도 정해지지 않았고,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광주경선은 기본적 원칙인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경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장 임장이어서 공식적 입장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인사들에게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안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 금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안타깝고 유감이다"며 "이번 지지 선언은 안 대표 등 지도부의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새정치연합 측 한 최고위원도 "충정은 이해하지만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

지 선언과 관련, 안철수 대표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교감이 없었으며 김경길 대표도 지지선언 의원들을 직접 만나 진의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균환 최고위원은 "광주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전략공천은 양날의 칼이라는 점에서 원칙과 기준, 명분이 잘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손학규 상임고문도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개혁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줄세우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략공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도 예고된다. 자신의 지역구 기초선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 자격심사위는 국회의원들이 기록된 내려놓기 선언을 하거나 위원회 참여를 막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광주시장 관계자는 "개혁공천이 양날의 칼이라면, 지방공천은 모두를 죽이는 최후의 수"라며 "개혁공천과 전략공천 명분하에 자기 사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혁공천의 기준에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천에 개

새정치, 광주시장 전략공천 강행면 강운태, 무소속 출마 이용섭, 탈당 가능성

당 지도부 결정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의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으로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설이 더욱 확산하면서 당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우선 당 안락에서는 지지선언 파동으로 전략공천 가능성이 오히려 줄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적인 전략공천을 선언해야 하는데 빠른 지지선언으로 당 지도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외 관련, 강 시장 주변의 한 인사는 14일 "이 의원은 의원직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강 시장은 돌아갈 데가 없다"며 "강 시장에 후퇴할 있을 수 없다. 무소속 출마 외에 선택할 카드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의원은 모르지만 우리 캠프는 어떤 경우에도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시민이 시장을 뽑는 게 새정치, 국회의원 몇 사람이 지지하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면서 "시민 뜻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전략공천을 한다면 이런 당을 어떻게 따르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경우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 중이어서 광주시장 선거는 완전 다른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강 시장 주변의 한 인사는 14일 "이 의원은 의원직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강 시장은 돌아갈 데가 없다"며 "강 시장에 후퇴할 있을 수 없다. 무소속 출마 외에 선택할 카드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의원은 모르지만 우리 캠프는 어떤 경우에도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시민이 시장을 뽑는 게 새정치, 국회의원 몇 사람이 지지하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면서 "시민 뜻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전략공천을 한다면 이런 당을 어떻게 따르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경우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지 논란 속 윤장현 전 새정치 공동위원장

"광주시장 경선방식 중앙당 결정 승복"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광주시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 "중앙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윤 전 위원장은 14일 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속마음으로는 선호하는 경선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위원장은 전남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대해 "기자회견 시작 50분 전에 기자회견 사실을 알았다"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지만 (개혁공천을 하지 않으면) 도로 민주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위원장은 "전략공천의 문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점도 거론되지만 짧은 피를 수혈해왔고 소수자를 배려해왔다. 이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위원장은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 3자 간 회동을 통해 경선방식에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며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그는 본보의 14일자 여론조사 결과 자신의 지지도가 10% 초반대에 그치는 데 대해 "합당 이후 두 후보(강운태, 이용섭)보다 지지도가 차지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하나투어

www.HanaTour.com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화사한 봄나들이 떠나세요!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가람여행사 남구 봉선동 이마트 2층	062)653-5230
세정투어여행사 삼정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리치투어 광산구 월계동 첨단C역 1층	062)431-0102

산수 절경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계림

무인출발 2014년 04월 09일 ~ 2014년 6월 04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계림] 이강유람*관암동굴 계림/양사 4일 499,000원 ~ 출발일 수요일	[계림] 인상유삼저*발마사지 계림/양사 4일 699,000원 ~ 출발일 수요일
[계림] 인상유삼저*행시호*용승원 계림/양사/용승원 5일 999,000원 ~ 출발일 토요일	[계림] 이강유삼저*관암동굴 계림/양사 4일 499,000원 ~ 출발일 수요일

꽃할배 추천여행지 정열의 스페인

인원출발 KE-2014. 5. 9 ~ 6.13 주 3회(월수금)
OZ-2014. 5.13 ~ 6.13 주 2회(화,목)

[계림] 스페인인원주 8~10일 2,690,000원 ~ 출발일 매주 월,화,수,금요일	[계림] 스페인/포르투갈 9~10일 2,890,000원 ~ 출발일 매주 월,화,수,금요일
[계림] 스페인/포르투갈 9~10일 3,790,000원 ~ 출발일 매주 월,화,수,금요일	[계림] 스페인/포르투갈 9~10일 3,790,000원 ~ 출발일 매주 월,화,수,금요일

무인출발 상품

[ICPF01-MUX]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 ~ 299,000원 ~ 출발일 5월19일, 14일	[CBPF04-OZ1] [초고속여행]특급/태항산 4일 729,000 ~ 699,000원 ~ 출발일 4월 매주 화요일
---------------------------------------------------------------------------	-------------------------------------------------------------------------------

[직항]보라카이 5일 가든 리조트
899,000원 ~
출발일 4월 ~ 일/월요일

푸켓 6일 옥시즌 풀빌라
1,000,000원 ~
출발일 4월 ~ 일/월요일

팔라우 6일 로얄 리조트
1,690,000원 ~
출발일 4월 ~ 일요일

마우이+오아후 7일 로얄리조트 + 에스토 2박1일 호텔
2,440,000원 ~
출발일 5월 ~ 토요일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에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로구) ■관광블로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